

“버내쿨러와 대중적인 것의 교차: 1910년대 경성 극장의 ‘연예(演藝)’를 중심으로”

The Intersection of the Vernacular and the Popular: Focusing on
‘yeonye’ (entertainment) in Seoul's Theaters during the 1910s

서지영(한류연구센터)

본 발표는 1900년대 초부터 경성에 출현하기 시작한 근대식 극장을 배경으로 새롭게 구축된 대중문화의 장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시도를 의제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전근대(조선시대)에 형성되었던 버내쿨러 문화(vernacular culture: 토착/자국/민간)가 20세기 초에 유입된 서구적인 형식의 대중문화 (popular culture)가 교차하면서 ‘연예(演藝)’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사적 지점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방법론적 틀로서 ‘버내쿨러’라는 개념을 전유하여, 조선시대 풍류/음악 문화의 맥락에서 발현되었던 다양한 층위의 음악적 실천/실제(practice)들을 살펴보고, 전근대적 사회 시스템 속에서 구현된 ‘버내쿨러’ 음악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관행들이 근대 초기에 어떻게 ‘연예’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재형태화되고 변형을 겪으면서 ‘공중(the public)’이 향유하는 ‘대중문화’로 전환되는지를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질문들, 가령 1910년대 전후 개념화되는 ‘연예’의 연원과 함의, 당시 근대식 극장이 기획했던 ‘연예’의 역사적 성격, ‘연예’의 연행자이자 공급자로서의 직업적 예인들의 등장, ‘연예’의 향유자이자 소비 주체로서의 ‘극장 공중(theater publics)’의 부상 등에 대해 다룬다.

또한 본 발표는 1910년대 ‘연예’를 둘러싼 몇가지 문화사적 쟁점들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당시 극장과 언론(신문) 매체를 매개로 해서 형성된 공적 친밀성(public intimacy)을 기반으로 셀러브리티가 출현하는 메카니즘과 대중 미학이 구축되는 징후들을 살피고, 나아가 1910년대 경성의 사회 정치적 지형 아래 극장과 신문 매체(<매일신보>)의 공생적 관계 속에서 상상되고 재현되었던 식민지의 공공영역 (public sphere)의 이질적/비균질적 국면들을 제시하고자 한다.